

Personality의 本質

—그 基本概念과 形成을 中心으로—

金 龍 燮

目	次
序 論	第一節 Personality 形成에 있어서의 遺傳과 環境의 役割
第一章 Personality의 基本概念	第二節 Personality 形成에 있어서의 遺傳的 要因
第一節 Personality의 意味와 定義	第三節 Personality 形成에 있어서의 環境的 要因
第二節 Personality의 構成要素	
第三節 Personality의 基本特性	
第二章 Personality의 形成	

序 論

“人間이 무엇이냐?”하는 質問은 人間에 依해 提起되는 가장 平凡하면서도 또한 가장 深奧한 疑問 中の 하나이다. 人間을 바르게 理解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重大한 課題이다. 모든 自然, 世界, 宇宙萬物이 人間을 爲해 創造되었고, 人間이 이 모든 것들의 中心이라 할 때 人間에 對한 바른 究明과 理解는 다른 그 무엇에 對한 理解보다도 더 基本的이고 先行해야 할 課題이다. 人間理解야 말로 모든 學의 基礎이어야 한다.

人間을 理解하려는 努力은 여러 側面에서 傾注되어 진다. 人間存在 그 自體를 問題로 하고 이를 根源적으로 解明하려는 哲學的 試圖나, 人體의 解剖學的 構造와 機能을 究明함으로써 人間을 理解해보려는 生理學的, 科學的 試圖나, 集團生活의 社會的 關係의 究明을 通해서 人間을 探求하려는 社會學的 試圖나, 그리고 그 精神이나 意識의 現象이나 機能 및 그 作用으로 나타나는 行動을 究明함으로써 人間을 理解해 보려는 心理學的 試圖等, 人間이 무엇인가를 探求하고 理解하여 說明해 보려는 人間에 依한 努力은 實로 多樣的 바 있고, 이들 努力에 依해 人間은 여러 觀點에서 多樣하게 把握되어 왔다.

本 論文은 “人間究明”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사람의 “사람됨”—Personality—을 理解함에 있어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 생각되는 問題들을 心理學的 立場에서 밝혀 보려는 것이다. 人間의 精神的 側面이나 身體的 側面이나 또는 社會行爲의 側面 등의 그 어느 한 側面에 對한 孤立된 斷片的인 究明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됨”, 即 “心理學的, 生物學的, 社會學的 全體로서의 統一體인 人間(性) (Person or Personality- humanity as a Psycho-bio-sociologically integrated whole)”

을 밝혀 보려는 것이 본論文의 意圖라는 바이다. 本論文은 Personality에 관한 全局面을 究明 하려는 것을 企圖하지 않는다. Personality全般에 對한 徹底한 體系的檢討는 하나의 論文의 課題로는 너무도 褊窄한 것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本論文은 論者의 觀點에서 Personality에 관한 諸 問題들 中에서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 생각되는 몇가지 主題들에 對해 一般的이고 基本的인 概念들을 論議, 展開하여 整理함으로써 Personality의 一般的 本質을 解明할 것을 課題로 하고 있다.

本 論

第一章 Personality의 基本概念

第一節 Personality의 意味와 定義

Personality란 말은 우리말로 “性格”, “個性”, “人性”, “人格” 등으로 번역되는 單語이다. Personality와 같은 意味로 사용되는 어휘로 Character(性格), individuality(個性), temperament(氣質) 등이 있는데 Character는 社會의 道德的要求에 따라 評價된 人間性으로, individuality는 個人에게 固有한 心理的, 生理的 特性으로서 他者로부터 區別되는 差異性에 重點을 둔 人間性으로 그리고 temperament는 體質的, 遺傳的으로 規定된 情緒의 反應의 面이 強調된 人間性으로¹⁾ 一般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Personality란 어휘는 우리말로 는 주로 “性格” 또는 “人格”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데, 前者는 大體로 人間의 情意的(心理的) 側面의 特性을 나타내는 意味로, 그리고 後者는 一般的으로 人間의 倫理的, 道德的 特性을 나타내는 意味로 理解되어지고 있다. “性格”이나 “人格”이란 우리말은 兩者 모두 Personality가 가진 意味의 一部分(主要한 部分이긴 하지만)을 表現하는 말로서 Personality가 가지고 있는 意味를 完全히 表現하지는 못 한다. Personality란 概念은 “性格”이란 우리말이 內包하고 있는 人間의 情意的(心理的) 特性뿐만 아니라, “人格”이란 말이 內包하고 있는 倫理的, 道德的 特性까지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精神的 側面과 아울러, 身體的, 社會的 및 行爲的 側面에 나타나는 特性까지도 包含하는 넓고 高次元의 概念이다. Personality는 이와 가장 가까운 意味로 흔히 混用되기도 하는 Character보다도 그 概念이 넓어, 知能, 情緒, 意志의 心理學的 特性과, 身體諸 器官의 生物學的 特性, 그리고 態度, 習性, 行動等 社會學的 特性等, 人間의 統一的 全體性을 말한다. 이에 對해 Character는 “바람직 하다”, “바람직 하지 못 하다”, “좋다”, “나쁘다” 등의 주로 人間의 價值的 特性을 나타내는 概念이다. Allport(G. W.)는 Personality와 Character의 두 概念의 差異를 이렇게 說明하고 있다. “Character is Personality evaluated and Personality is Character devaluated.”²⁾

1) 小見山榮一, 教育心理學要說, 改訂版, 東京, 金子書房, 1969, p. 158.

2) Allport, G. W.,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 Y., Holt, 1937, pp. 24, 29, 52.

이와 같이 人間의 全體를 意味하는 것이 Personality 이므로 그 一部分의 概念밖에는 나타내지 못 하는 譯語는 어느 것이나 適合하지 않다. 따라서 原語 그대로 “Personality”로 使用하는 傾向이 많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正確한 本來의 概念을 더 効率的으로 나타낼수 있으므로 論者는 本論에서 原語 그대로 Personality란 單語를 使用코자 한다.

Personality란 人間이 各己 特質을 가지고 全體로서 統一되어 하나의 統一的 存在로써 움직이고 있는 狀態를 말한다. 이와 같이 Personality는 人間의 統一된 全體性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對한 定義도 매우 困難하다. 統一的 存在로서의 人間에 對한 見解는 여러가지 立場에 따라 相異하기 때문에 Personality에 對한 定義도 또한 極히 多様하다. 이 多様性은 Personality 그 自體가 極히 複雜하고 여러가지 因子를 內包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英語의 Personality란 말은 本來 두개의 라틴語에서 由來하였다. 그 첫째 경우는 Per(통하여)라는 前置詞과 sono(말하다)란 動詞다. 통하여 말한다는 뜻이다. 即 Personality란 個人이 그것을 통하여 말하는, 그리하여 他人에게 自己를 나타낸다고 하는 本來的인 意味를 가진 말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Personality는 個人이 그것을 통해서 他人에게 自己의 自己됨을 알게 해 주는 것, 即 自身の “사람됨”을 表現하는 概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우, Personality란 英語가 由來한 또하나의 라틴語는 Persona로써 그 意味는 假面, 사람, 人物, 人格等이다. 이 말은 本來 古代 希臘이나 로마時代에 演劇에서 배우들에 依해서 사용된 一種의 假面을 意味하는 單語이었다. 이 假面은 演劇에서 배우들이 自身들의 存在와 役割을 觀衆에게 똑똑하게 認識시키기 爲해서 사용된 것이었다. 따라서, Persona를 語源으로 하는 Personality란 말은 個人이 그것에 依해서 自己의 存在와 役割을 他人에게 똑똑하게 認識시켜 주는 것이란 概念으로 使用되기 始作했던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라틴語의 Per sono나 Persona에서 由來한 Personality는 그 語源上 意味에 있어 個人이 自身の “사람됨”을 他人에게 밝히 나타내어 알려 주는 것이란 概念으로 理解된다.

Personality란 말은 그 語源上의 그것과 아울러 많은 意味를 包蓄하고 있는 單語로서 普通 두 立場에서 그 概念이 把握된다. 通俗的 立場과 專門的 立場이 그것이다. 通俗的 立場에서 把握되는 Personality의 意味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結局 다음 두가지 中의 어느 하나에 屬한다.³⁾ 그 첫째는 Personality를 個人의 社會的手腕 또는 才幹(social skill or adroitness)과 같은 意味로 보는 경우이다. 이러한 意味일 境遇 사람의 Personality는 그가 다른 狀況에 處해 있는 여러모로 相異한 他人들로부터 肯定的인 反應을 이끌어 낼수 있는 効率性을 말한다. 이는 Personality를 個人의 社會的 刺戟價値(social-stimulus value)로 생각하는 見解이다. 다시 말하면 Personality는 個人의 社會的 人間關係에서 規定되는 것으로써 個人의 社會生活에서의 對人關係에서 그가 他人에게 어떠한 價值的 刺戟을 주고, 또 이에 對해 他人으로부터 어떠한 價值的 反應을 얻어

3) Hall, C. S.; Lindzey, G., *Theories of Personality*, 2nd edition, N. Y., John Wiley & Sons, Inc., 1970, pp. 7-8.

는 개인에 관한 모든特質的要素들이 그 속에 포함되는全體性으로 보고 Personality란 바로 이들要素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立場에 서는 代表的인 사람으로 Morton Prince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定義하고 있다. "Personality란 개인의 生物學的으로 타고난 氣質과 衝動과 性向과 興味와 本能과, 그리고 經驗에 依해서 獲得한 氣質과 性向等 모든 것을 합친全體이다" (Personality is the sum-total of all the biological innate dispositions, impulses, tendencies, appetites, and instincts of the individual, and the acquired dispositions and tendencies acquired by experience.)¹⁰⁾

또 다른 類型의 定義로 들 수 있는 것은 Personality를 個人存在의 全體的 組織으로 보는 立場에서 試圖된 것들이다. 이들에 依하면 Personality란 個人的 여러가지 行動에 有機的組織(organization)과 型(Pattern)을 賦與하는 個人的 속에 있는 積極的 힘(active force)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Warren(H. C.)과 Carmichael(L.)은 Personality를 "人間發達の 어느 段階에 있어서의 人間存在의 全體的組織(the entire organization of a human being at any stage of his development)"¹¹⁾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Personality를 個人的 適應을 媒介하는 機能으로 보는 立場도 있다. 이러한 立場에서는 Personality란 개인에 依해서 展開되는 適應을 爲한 多様하고도 特有한 努力을 意味한다. 이러한 見解는 適應과 生存과 進化를 強調하는 心理學者들과 生物學者들에 依해 表明된 것이다. Kempf(E. I.)는 이렇게 定義하고 있다. "Personality란 個人的 環境에 對한 特徵的 適應을 나타내는 習慣體系의 統一體이다." (Personality is the integration of those systems of habits that represent an individual's characteristic adjustments to his environment.)¹²⁾

個人的 行動의 側面에서 Personality를 把握하려는 立場도 있다. 이 立場에 있는 사람들은 Personality를 모든 다른 사람들과 區別짓는 個人的 固有한 行動特性으로 본다. 이러한 見解를 表明하는 Cattell(R. B.)은 定義하여 "Personality란 주어진 狀況에서 개인이 어떠한 行動을 할 것인가 하는 豫想을 許用해 주는 것이요…… Personality란 表面에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個人的 모든 行動과 關係하는 것" (Personality is that which permits a prediction of what a person will do in a given situation…… Personality is…… concerned with all the behavior of the individual, both overt and under the skin)¹³⁾라고 말하고 있다.

끝으로 들 수 있는 類型의 定義는 Personality를 人間的 實體(Essence of man)를 나타내는 것

이라는 見解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는 個人을 가장 強하게 特徵짓는 特異性(distinctiveness)이 바로 個人的 Personality로 생각된다. 이때 個人을 特徵짓는 特異성이란 個人들로 부터 그를 區別시켜주는 差異있는 要素일 뿐만 아니라, 더욱 重要的 것은 그 個人的 참된 사람됨(what a man really is)¹⁴⁾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Schoen(M.)은 다음과 같이 Personality에 對한 定義를 내린다.

Personality란 同一 集團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어느 한 사람과 서로 다르게 區別짓는 習慣과 氣質과 情緒의 組織體系요 機能的 全體요 또는 統一體이다. (Personality is the organized system, the functioning whole or unity of habits, dispositions and sentiments that mark off any one member of a group as different from any other member of the same group.)¹⁵⁾

以上에서 우리는 Personality에 對해 여러가지 다른 立場에서 내려진 定義들을 批判을 加하지 않고 簡略하게 概觀해 보았는데 이들中 Allport의 定義가 가장 包括的이고 適切한 것으로 認定되고 있고, 또 따라서 가장 많이 引用되어지고 있다. "Personality is the dynamic organization within the individual of those psychophysical systems that determine his characteristic behavior and thought"란 그의 定義에서 그가 "Psychophysical"이란 含蓄性있는 말을 쓴 것은 Personality가 全적으로 人間的 內的要因으로서의 精神的인 것(心理的인 것), 또는 生理現象으로서의 內臟器官이나 神經系에 關係되는 것 만이 아니요, 이들의 外的으로 나타나는 現象으로서의 身體的 또는 物理的인 것에 關係되는 것 만도 아님을 밝히기 爲해서이다. Allport는 個人的 Personality는 個體內에서 實體로써 作用하는 精神·神經的인 局面(psychic or psychological aspect)과 個體밖에서 實存하는 身體 및 行動으로 表現되는 物理的인 局面(physical aspect)의 兩者를 모두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生覺한다. 그리하여 Allport에 依하면 個人的 心理的(精神的) 및 身體的組織과 그 特質, 그리고 環境에 適應하려는 個人的 行動傾向성과 思考傾向성等, 全體로서 統一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의 사람됨", 바로 그것이 Personality이다.

Personality란 身體와 精神의 諸 要素들의 統一의 全體性으로 把握되어 지는 것으로서 이는 單純한 部分을 합친 總和概念은 아니다. 身體와 精神의 諸 特徵들이 서로 作用하여 均衡과 調和를 이루면서 하나의 統一된 全體로서 個人的 特徵的 傾向성을 이루는 것이 Personality이다.

또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Personality는 개인이 지닌 精神的, 身體的 傾向性으로써 이 特性은 개인에게 恒存성을 갖는 것이긴 하나, 그러나 이는 固定不變의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變化, 發達하는 것이다. 即, Personality는 精神力學的 概念으로써, 環境에 不斷히 作用을 加하기도 하고 또 同時에 環境으로 부터 不斷한 影響을 받으면서 停止하는 일이 없이 現實社會속에서 全實體로서 活動하고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現實社會環境속에 있는 生活體의 活動 그 自體는 Personality의 適應의 過程으로써 그 適應의 方法은 사람의 Personality가 多様な 것

10) Prince, M., *The unconscious*, 2nd ed., N. Y., Macmillan, 1924, p. 532.

11) Warren, H. C.; Carmichael, L., *Elements of Human Psychology*, 1930, p. 333, cited in Lazarus, R. S., op. cit., p. 58.

12) Kempf, E. J., *The autonomic Functions and the Personality.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Monograph*, 1921, No. 28, Cited in Lazarus, R. S., op. cit., p. 58.

13) Cattell, R. B., *Personality: a systematic theoretical, and factual study*, N. Y., McGraw-Hill, 1950, pp. 2-3.

14) Allport, op. cit., p. 48.

15) Schoen, M., *Human Nature*, 1930, p. 397, Cited in Lazarus, R. S., op. cit., p. 59

처럼 매우 多樣하다. Personality란 身體的, 精神的 諸 特性이 統合된 全體이며 力學的體系로서 環境속에서 恒常 適應을 爲해서 움직이고 있는 個人的 特徵의 存在樣相이요 行動傾向性이라 할 수 있다.

以上的 論議를 바탕으로 Personality는 다음과 같이 要約해서 그 概念을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1. Personality는 個人的 精神과 身體의 統一的 全體로써, 即 固有的 精神·物理的인 體系(psychophysical system)로써 把握되어 지는 것이다.
2. Personality는 個人에게서 나타나는 精神的, 身體的 傾向이나 反應 等の 單純한 總和가 아니라 力動性있는 統一的 體制이다.
3. 이러한 體制는 一生동안 持續되는 一定한 傾向性을 가지고 있긴 하나 固定 不變의 것이 아니라 個人的 生活環境 또는 社會的 關係에서 不斷히 發展하고 變化한다.
4. Personality는 個人的 單純한 行動 또는 活動 그 自體가 아니라, 이들을 規定하는 傾向의 體系이다.
5. 모든 有機體(人間)의 行動이나 活動은 環境에의 適應의 過程이므로 이러한 意味에서 Personality는 適應의 樣式이라 할 수 있다.
6. Personality는 그때 그때의 行動에 依해서 表現되는 日常生活의 機能이다.

第二節 Personality의 構成要素

前節에서 우리는 personality의 基本概念에 對해 살펴보았다. Personality는 人間の 精神的側面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要素나 傾向性 그것 만이 아니요, 生理的 構造와 作用에 依해 나타나는 特徵 그것만도 아니요, 身體의 體格形態나 이의 機能에 依해서 表現되는 印象의 特徵 그것 만도 아니요, 社會的 人間關係나 環境에의 適應을 爲한 行動의 特殊한 傾向性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全部를 包括하는, 單純한 部分의 統和가 아닌 有機的 및 力動的 統一體로서의 精神·物理的(心理的·身體的) 全體性에서 把握되는 것임을 알았다. 이러한 點에서 Personality를 形成하는 構造的 側面은 어느 程度 밝혀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Personality를 構成하고 있는 個要素에 對한 直接的인 檢討는 加해지지 않고 있다.

本節에서는 精神·物理的-心理的·身體的(psychophysical)統一體로서의 人間の 全體性을 意味하는 Personality를 그 構造的側面에서 Gates(A. I.)의 分類¹⁶⁾를 土臺로 하여 이들에 對한 論議를 加해보고자 한다.

16) Gates, A. I., *Psychology for Students of Education*, rev. ed., N. Y., The Macmillan Co., 1930, pp. 569-572. 그는 Personality Traits로서 이들을 分類해 놓고 있으나 論者는 이들이 지닌 Personality 形成의 要素의 性格을 감안하여 本節의 題下에서 이를 다루었다. 勿論 Personality 理論家들의 構造論과 는 다른 角度에서 取扱하였다.

Personality를 構成하는 첫 要素는 身體的 特性(physical traits)이다. 身長, 體格形態, 外貌(appearance), 얼굴의 表情, 健康, 體力(stamina) 및 各種 身體機能이 이에 屬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의 사람됨 -Personality構造의 基本要素들로서 Personality의 形成과 그 外的特性的의 決定에 크게 役割하는 것들이다.

둘째는 精神的特性(mental traits)이다. 知能(intelligence)을 비롯해서, 記憶, 知覺, 推理, 想像 等 精神機能등을 들 수 있다. 이들 精神的要素는 人間の 內的機能들로서 個人的 Personality를 形成하고 特徵짓는 因子들이다.

세째는 特別한 素質과 力量(special talents and capacities)이다. 藝術이나 技術方面에 타고난 素質이나, 身體運動이나 感覺機能이나 社會適應性 等の 先天的 或은 後天的 力量 等은 Personality 構成의 主要한 한 方面이다. Personality를 包括的인 넓은 概念으로 理解할 때 여기엔 個人的 藝術性이나 特殊한 領域에의 素質과 그 力量까지도 包含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특히 個人的 社會適應性은 Personality 形成要素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네째는 後天的 興味, 知識 및 才幹(acquired interest, knowledge and skill)을 들 수 있다. Personality는 넓은 意味로 볼 때 個人이 무엇을 알고 무엇에 興味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側面도 包含되어 있다 할 수 있다. 即, 個人的 知識과 興味가 反映되어 Personality의 一部 傾向性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이 知識과 興味를 어떻게 効率的으로 作用시킬 수 있는 가의 才幹에 따라 사람의 사람됨의 特性은 影響을 받는 것이다.

다섯째로 氣質(temperament)이 Personality를 이루는 하나의 因子임은 말 할 必要도 없다. 氣質이란 주로 個人的 精神的性向과 이에 依해서 나타나는 行動樣相을 意味한다. 이는 Personality를 構成하는 가장 重要한 要素中의 하나로서, 이따금, Personality 그 自體를 意味하는 말로 代用되기도 한다. 個人的 精緒의 安定性, 不安定性, 明朗性, 憂鬱性, 樂觀性, 悲觀性, 勇敢性, 卑怯性 等 Personality의 主要 特徵은 모두 氣質에 關係되는 屬性인 것이다.

여섯째로 意志(volition)도 Personality를 形成하는 한 因子이다. 意志란 모든 形態의 行動을 自律的으로 制禦하기도 하고 促進하기도 하는 精神機能의 한 方面이다. 意志는 個人的 理想과 目的에 따라 어떠한 狀況에서 合目的인 行動을 이르게 이 行動에서 오는 狀態를 持續시키기도 하고 反對로 理想과 目的에 어긋난 行動은 이의 發生을 抑制하기도 하는 精神的 自律的 힘이다. 意志는 Personality의 道德的 傾向性을 特徵짓는 倫理的 屬性이라 할 수 있다. 不幸과 逆境을 克服하고 理想과 目的에 따라 行動의 基準을 固守하면서 環境이 빚어내는 事態에 成功的으로 適應하면서 健全한 삶을 營爲케 하는 Personality의 原動力은 주로 意志라 할 수 있다.

일곱째로 Personality를 構成하는 主要한 要素를 또한 性格(character)을 들 수 있다. 性格(character)은 道德的, 宗教的 및 社會的으로 承認된 行動基準에 따라 造成되는 狀況에 反應傾向을 일으키는 倫理性이 강한 精神的 한 因子이다. 氣質(temperament)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 依해 Personality 그 自體를 意味하는 말로 흔히 使用되는 character란 用語 또는 character라고 불

리워 지는 精神領域은 Personality의 構造에 있어서 가장 큰 意味를 갖는 要素中の 하나이다. Personality의 譯語로서 “人格”이란 말과 함께 “性格”이란 이 말이 그토록 많이 使用되고 있는 事實만 보아도 이 性格이라고 하는 精神要素가 Personality를 形成하는 또하나의 重要的 因子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들은 것들은 모두 個人에게 先天的으로 또는 後天的으로 直接 주어져 있는 個體內的인 要素들 이라 할 수 있다. 이들 個體內的인 因子들과 함께 생각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Personality의 構成要素는 習慣(habit)이다. 習慣은 위에 들은 個體內的인 要素들이 個體 밖으로 作用하여 나타난 하나의 傾向性이다. 個體가 주어진 環境속에서 어떠한 反應作用을 身體의 一部 惑은 全部를 통해서 어느 期間 反復하여 그것이 어느 程度 固定的 形式을 取하여 하나의 傾向性으로 나타날 때 이를 가리켜 習慣이라 한다. 習慣은 學習에 依해 獲得된 反射作用 樣式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個人的 特徵의 傾向性으로서의 Personality의 形成은 어느 意味에서는 結局은 個人的 習慣形成의 過程이라 할 수 있다.

위에 들은 要素들은 Personality 構成에 있어 完全히 排他的으로 孤立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러 形態로 相互重疊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作用이 서로 交叉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서로 補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補充하기도 하면서 單純한 統和가 아닌 하나의 統一된 全體로써 完全한 Personality를 構成하는 것이다.

第三節 Personality의 基本特性

人間은 누구나 自身을 他人과 區別하는 固有的 Personality의 類型的 特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Personality는 個人에 따라 相異하기 때문에 모든 個人들을 몇개의 特徵의 類型에 넣어서 一律적으로 區別할 수는 없다. 여기서 注意해야 할 것은 個人에 따라 特徵的인 差異가 있다고 해서 個人的 Personality를 全히 系統이 없는 豫想할 수 없는, 個人이 지닌 特徵들의 無秩序한 集合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事實이다. 사람은 個人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러나 個人은 언제나 一貫性있게 自身の 自身된 特性(identity)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Personality는 個人的 固有的 特徵的 “사람됨”이다. Personality는 個人的 identity를 나타내는 固有的 人間性的 象徴이지만, 이것이 모든 人間에게 普遍的으로 賦與되고 開發된 것이라 할때 여기에는 누구에게나, 적어도 正常人에게는 共通的으로 주어진 同一한 特性이 있는 것이다. 이 特性을 Gates(A. I.)는 Personality 組織의 特性(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organization)이라 부르고 이들 特性으로서

1. 統一性 或은 統合性(unity or integration)
2. 一貫性(consistency)
3. 連續性과 持續性(continuity and persistency)
4. 調整性과 融通性(coordination and flexibility)

등을 列舉하고 있다.¹⁷⁾

이들 特性들은 어떠한 사람의 Personality에도 隨伴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調和와 均衡을 이루면서 合理的으로 作用할 때 個人的 Personality는 分裂을 일으키지 않고 健全하게 發展하여 바람직한 삶을 營爲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중 어느하나가 그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지 않거나 그 機能에 均衡이 상실될 때엔 Personality는 그 調和가 파괴되어 그 結果 不適斷行動이 誘發되는 것이다.

Gates가 列舉한 特性들을 中心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Personality에서 볼 수 있는 基本的이고 共通的인 特性들에 對해 考察해 보자

Personality의 統一性 或은 統合性(unity or integration of the self or personality)—健全한 Personality는 짜임새 있게 서로 密接하게 組織되고 連關되고 統一된(integrated) 反應傾向性으로 形成되어 있다. 自身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自身の 가장 깊은 中心部에 座定하고 있는 否定할 수 없고 움직일수 없는 自我(self)가 있음을 본다. 이 自我는 어려서 부터 어떠한 環境에서도 他者와 區別하여 自身の 自身됨을 確認해 주고 特徵지워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除去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은 除去할수 없는 “나”의 “나” 됨을 主張하는 自我인 것이다. 이 自我는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集中되고 組織되어 있는 하나의 統一된 組織體인 것이다. 우리의 思考와 感情과 記憶과 情緒와 그리고 欲望과 意志와 目的은 全히 別個의 因子로 孤立되어 無秩序하게 散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 密接하게 連關되고 組織되어 우리의 自我속에 統合되어 있는 것이다. 自我는 바로 “나의 나됨”, 即, “사람됨”—Personality를 말한다. Personality는 우리의 心理學的 要素 뿐만 아니라 生物學的인 모든 要素들을 統括하고 있는 統一된 全體이다. 우리의 知, 情, 意의 모든 精神要素와 機能은 우리의 自我—Personality속에 統合되어 있고 또 自我—Personality에 依해서 統一된 組織體로서의 作用을 하는 것이다. 이의 作用이 身體行動으로 나타날때 이 行動에는 하나의 特徵的 傾向性을 갖게 되는바 이 傾向性은 바로 自我—Personality의 그것에 依해 規定되는 것이다.

一貫性(Consistency)—自我—Personality의 또하나의 特性은 一貫性이다. 他者와 區別하여 個人的 identity를 特徵지워 주고 그 內的-外的 作用에 있어서 하나의 固有的 傾向性을 賦與해 주는 Personality는—Personality의 特徵的 傾向性은—언제나 流動的으로 變化하는 것은 아니다. 特殊한 例外的인 境遇는 除外하고 個人的 處해 있는 事態에 따라 거의 同一한 反應形式을 取함으로써 一貫性있는 行動傾向性을 갖게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俗談은 Personality의 이러한 特性을 잘 說明하는 말이다.

連續性과 持續性(continuity or persistency of self and personality)—Personality는 實體로서의 그 特徵에 있어서나 內的, 外的 作用에 나타나는 傾向性에 있어서 一貫性이 있다는 것은 그것

17) Gates, A. I., Ibid, p. 503.

이 絶對不變의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 特徵의 反應傾向性이 여러가지 相異한 狀況에서도 (같은 狀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同一하게 나타난다는 말이다. 그런데 Personality는 個人이 자라가는 동안에 環境과 生活與件에 따라 늘 조금씩 變化에 간다. 그러나 이 變化는 特殊한 信仰的 回心이나 疾病이나 어떠한 劃期的인 事件에 의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매우 느리고 連續的인이다. Personality는 精神的, 身體的인 諸 要素의 全體로서의 統一성과 特徵의 一貫성을 繼續保存하면서 漸次的으로 變化하고 再組織되어 가는 것이다. 突然的인 變革이나 再構成이란 있을 수 없다. Personality는 오랜 期間에 걸쳐 徐徐히 變化하지만, 이때에도 個人에게 固有한 特徵的 Pattern은 그대로 持續되어 남는 것이다. 宗教的 回心 등에 의한 突然的 變化의 境遇나 長期間에 걸친 漸進的 變化의 境遇를 莫論하고 사람의 自我—Personality는 지워 없앨 수 없는 것이다.

融通性和 不融通性(flexibility and inflexibility of personality)—Personality의 特性으로서의 融通性和 不融通性은 相反되는 概念이다. 融通性이란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한 方面의 特徵의 傾向性 뿐 아니라 여러가지 差異가 있는 傾向性을 同時에 가지고 있으면서 狀況에 따라 適應해 가는 型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은 明朗하고 재치있고 다정한 傾向性과, 眞執하고 꼼꼼하고 勤勉하고 事務的인 傾向性과, 謙遜하고 仁慈하고 賁大한 傾向性 등, 서로 다른 特徵의 傾向性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傾向性들은 個人이 直面하는 事態에 따라 또는 個人의 欲求充足의 意圖에 따라 알맞게 作用하여 行動으로 나타난다. 이때 서로 다른 이들 傾向性들은 서로 衝突치 않고 保充하여 調和를 이루면서 個人의 不適應을 막고 Personality의 分裂을 防止한다. 이러한 Personality의 融通성은 경우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하는 分裂性 또는 二重性과는 다르다.

Personality의 不融通性이란 언제나 同一한 傾向性이 行動을 支配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嚴格하고 고지식하고 진지한 傾向性이 다른 여러 傾向性을 억누르고 그 方面으로만 作用하는 境遇다. 이러한 Personality는 個人의 意志를 貫徹시켜 成功으로 이끄는 肯定的인 面도 있지만, 反面 不適應의 主要因이 될 수도 있고 個人의 健全한 生活을 害칠 수도 있다.

우리는 融通性和 不融通性의 兩極에 있는 여러가지 Personality의 特性을 다가지고 있다. 그中 어느 한 傾向性이 特히 強하고 支配的일 때 그것이 그 사람의 Personality의 特徵을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大概是 이러한 特徵들은 서로 잘 融通하고 調和하고 均衡을 이루어 健全한 Personality를 維持케 하는 것이다.

調整性和 相衝性(coordinating and conflicting trends)—Personality 特性中에서 가장 重要한 것들中의 하나가 調整性和 相衝性이다. Personality를 特徵짓는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 諸 要素들에 對해 모두 作用하면서 行動을 이끄는 原動力으로서 여러가지 欲求(desire)가 있다. 行動은 欲求充足의 手段이다. 그런데 人間의 欲求는 여러 가지 方面으로 作用한다. 때로는 놀고 싶은 欲求와 함께 일하고 싶은 欲求도 나타나고, 돈을 모으고 싶은 欲求와 함께 善한 일에 投

資도 해보고 싶은 欲求도 나타나는가 하면, 信仰의 理想에 도취해보고자 하는 欲求와 함께 俗世의 現實을 따르고 싶은 欲求도 나타난다. 이러한 欲求들이 Personality에 作用할 때 個人은 갈등을 겪게 된다. 價値가 對立되는 相反되는 欲求에 影響을 받는 Personality의 特性中의 하나는 이 相衝性(conflicting)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Personality는 이러한 一方의 特性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相衝되는 欲求는 Personality에 依해 調整되고 調和된다.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價値속에서 여러가지 對立되는 欲求들을 調整하면서 個人生活에 調和와 安定을 維持시켜 주는 것이 Personality의 重要한 特性이다.

分裂性和 二重性(dissociation and alternation of personality)—Personality의 또 하나의 特性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分裂性 또는 二重性 또는 多重性(doubleness, duplicity or multiplicity)이다. Personality는 여러가지로 다른 特徵의 傾向性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融通性있게 서로 補充하면서 全體로서의 調和를 이루어 事態에 適應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는 Personality의 이러한 統合的 融通性이 發揮되지 않음으로써 서로 다른 傾向性들은 統一體로서의 特性을 維持하지 못하고 그 統一性이 分裂되어 두개의 或 때로는 그 以上の 傾向性이 孤立하여 서로 交互(alternate)하면서 그때 그때 狀況에 따라 서로 다른 Personality로 나타나는 것이다. 普通 二重人格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 大概是 交互하는 傾向性中의 어느 하나가 支配的이어서 大部分 그 支配的인 傾向性이 그 個人의 Personality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個人이 處한 狀況與件이 다를 때에는 必要에 따라 便利하도록 臨機應變하여 다른 傾向性이 나타나 그 사람의 또 하나의 Personality를 이루는 것이다. 이리하여 統一體로서의 Personality는 分裂되어 同一 個人에게 들, 或은 그 以上の 複數自我가 內在하게 되며 이 複數自我는 融合을 이루지 못하고 別個의 것으로 個人이 直面하는 狀況의 必要에 따라 交互하여 作用하는 것이다.

第二章 Personality의 形成

Personality는 사람에 따라 各樣各色이다. 이러한 Personality는 어떻게 形成되고 무엇에 依해 決定되는가? Personality를 形成하고 決定하는 要因도 또한 여러가지로 다르다. 그 어떠한 要素와 그 作用의 結果로써 사람의 固有한 Personality는 形成되고 決定되어 個人에게 具有되는 것인데, 이때 Personality의 形成과 決定過程에 나타나는 因果關係를 正確히 究明하기란 極히 어려운 課題이다. 그 理由는 그 어떠한 要因은 때로는 몇몇 相異한 個人들에게 같은 傾向의 Personality를 形成케 하는 일도 있지만, 한편, 똑같은 同一한 要因이 때로는 서로 相異한 與件下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勿論, 거의 같은 狀況에 處해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도 全然 다른 異質的 傾向의 Personality를 形成케 하는 경우를 往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Personality와 그 決定 要因들 사이에는 이러한 複雜한 關係가 있으므로 어떠한 要因이 그 結果로서 어떠한 傾向의

Personality를 形成한다고 하는 確定的인 因果關係를 確立할수는 없다. 本章에서는 다만 Personality를 形成하고 決定하는 一般的要因들과 그 要因들의 作用의 結果로서 形成, 決定되는 Personality의 一般的 傾向性에/對해 論考해 보코자 한다.

第一節 Personality形成에 있어서의 遺傳과 環境의 役割

Personality를 人間的 精神的, 身體的, 社會的 要素와 機能들로 이루어지는 統一的 全體로서 把握할 때 Personality를 形成하고 決定하는 要因들은 이들 諸 領域에 屬한 것임은 말할 必要도 없다. 이들 領域들은 個體와 環境의 問題로 集約할 수 있다. 그런데 個體를 規定하는 것은 主로 遺傳的作用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個體와 環境의 問題는 遺傳과 環境의 問題로 生覺할수 있다. 따라서 Personality의 形成과 決定에 關한 究明은 遺傳과 環境의 問題에 對한 究明없이는 不可能하다. Personality는 先天的으로 타고난 遺傳的要素와 後天的으로 經驗을 通해서 獲得한 (acquired) 環境的 要素로 形成되어 이들의 作用에 依해서 決定되고 發達해 간다. Personality는 遺傳과 環境의 產物이다. 그런데 이 兩者는 어느쪽이 Personality 形成에 더 重要하고 어느쪽이 더 重要的한 것일 수는 없다. 兩者가 똑 같은 重要性을 가지고 Personality의 形成, 決定과 發達에 影響을 끼치는 것이다.

Personality를 形成하고 決定하는 要因으로서의 遺傳과 環境의 役割에 關한 研究는 많은 사람들에 依해 行해져 왔다. 或者는 遺傳的 要因을 더 重要하게, 或者는 反對로 環境的 要因을 더 重要하게, 또 或者는 兩者를 同等하게 取扱하였다. 이제 그 重要的한 것들을 살펴보자.

遺傳的 要因을 究明하려는 試圖는 主로 家系의 研究와 雙生兒의 研究에 依해 展開되었다. 家系研究나 雙生兒研究는 Personality의 形成에 있어서 遺傳的 役割이 어떠한 것인가에 對한 貴重한 資料를 提供해 주고 있다. 家系研究에 依하면 傑出의 家系나 劣等의 家系에서는 各己 同一한 特徵的인 Personality가 子孫에게 遺傳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研究의 代表的인 例의 하나로 Jonadan Edward(1903~1758) Princetom 大學總長의 家系調査¹⁸⁾와 Arthur Jukes

18) 崔在浩編 HLKA 連續放送人生讀本 오늘과 내일때문에, 徵文出版社, 1963, 崔臣海篇, 結婚과 血統, p.173 Winsip란 사람이 1900년에 Edward 家의 子孫1394名을 찾아 그들의 行跡을 더듬어 보았는데 그 結果는 이러하다: 295名이 大學卒業者, 13名은 美國의 큰 大學의 學長, 65名은 大學教授, 60名은 醫師 100名以上이 牧師와 宣教師, 75名은 陸海空軍의 將校, 60名은 有名한 著術家와 記者(이들에 依해 135種의 有益한 冊과 18種의 有名한 雜誌가 出版되었다), 100名以上은 法律家(그중 한사람은 美國서 一流가는 法學教授), 3名은 上院議員, 其他 多數의 州知事, 國會議員, 市長, 大使, 公使와 鐵道, 汽船, 銀行, 保險會社 等の 重陣級, 不知其數의 實業家, 놀라운 것은 이들 子孫中에서 단 한 사람의 犯罪者도 發見되지 않았다.

의 家系調査¹⁹⁾를 들수 있다. 이들 兩家의 家系研究를 通해 밝혀진 結果는 人間的 遺傳的 血統이 人間性을 形性하고 決定하는데 얼마나 큰 役割을 하는가를 雄辯으로 立證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調査結果가 示唆해 주는 遺傳的 要因의 Personality에 끼치는 影響에 對해서는 實로 驚악을 금치 못하며 여기에 包蓄된 意味는 깊히 吟味되어지는바 있다.

Johan Sebastian Bach (1685~175)의 家系에 對한 研究에서 얻어진 結果도 또한 遺傳的 役割에 關한 興味로운 示唆를 提供해 주고 있다. Bach를 中心으로 위로 3代와 밑으로 1代計 5代에 걸쳐 Bach家에 屬했던 72名의 人士들을 對衆으로 調査한 結果를 보면²⁰⁾ 音樂專門家가 아닌 사람이 31名, 音樂專門家가 41名이 었다는바 이들 41名中 단 2人을 除外하고는 音樂을 生業으로 하였다 한다.

Hoffman(H.)의 精神疾患者家系研究에 依하면²¹⁾ 躁鬱病을 앓았던 夫婦에게서 태어난 4代에 걸친 (그 夫婦를 包含해서) 家系에서 精神疾患者가 태어나지 않은 代는 한 代도 없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Personality 形成에 影響을 끼치는 遺傳的 要因을 밝혀기 爲해 動物實驗도 行해지고 있다. W. M. Dawson(1932)은 活動性있는 쥐와 活發치 못한 쥐들의 암컷들과 수컷들을 各各 골라 같은 性向을 가진 것들 끼리 交配케 하여 그 結果 새끼들을 얻었는데, 活動的인 雙들에게서는 뚜렷하게 活動的인 亂暴한 性向을 가진 새끼들이 태어났고, 反面, 活發치 못한 雙들에게서는 亦是 같은 性向의 새끼들이 태어났음을 報告하고 있다.²²⁾

Personality에 끼치는 遺傳的 要因을 밝혀려는 研究와 아울러 環境的 要因을 究明하려는 試圖도 許多히 있어 왔다. Margared Mead(1935)의 南太平洋地域居住 原住民들에 對한 多年間에 걸친

19) 崔在浩編 Ibid, pp.171-172 Doctae이란 사람이 1877년에 報告한이야기는 이러하다: New York에 있는 어떤 刑務所에 갇혀있는 罪囚들중 똑 같은 姓을 가진者들을 우연히 收監者名簿에서 發見하였다. 드문 姓이기에 好奇心에서 그들의 호적등본을 求해 血統을 더듬어 보니 그들은 6代 先祖인 和蘭에서 왔다는 게 으르고 不良한 漁夫 Arthur Jukes의 後孫들임을 밝혀냈고 이렇게 繼續 追跡하는 中에 1200名의 Jukes家의 血統을 받은 子孫들을 찾아 내었는데 이들의 行跡을 더듬어본 結果: 經歷을 確實히 알아낼수 있는 者가 540名, 어렴풋이 알수 있는 者가 500名, 어렸을때 죽은 者가 300名, 病弱者가 440名, 收容所身勢를 진 거지가 310名, 犯罪者가 130名, 常習的인 도둑놈이 60名, 殺人犯이 7名이었고, 한편 女子들중 行跡이 밝혀진 者의 約 半數는 賣春婦였고 小學校를 마친 者는하나도 없었다. 그동안에 美國政府가 이一族을 爲해 쓴 돈이 75年동안에 125만달라나 되었음을 밝혀 냈다. 이로 부터 23年後, 1900년에 Winsip란 사람이 이 家系血統에 興味를 가지고 다시 調査해본 結果: 經歷을 確實히 알수 있는 者 790名 中, 私生兒가 106名, 賣春婦가 181名, 거지가 142名, 救護所收容者 62名, 犯罪者 76名, 이 중 7名은 殺人犯이었다. 이들 家系血統을 받은 上記者들中 刑務所生活를 한 者들의 刑罰은 總延年數는 161年이었고, 救護所收容者들의 延收容年數를 합쳐 보니 734年 이었다. 이로 부터 15年後인 1915년에 다시 Estaburg라는 사람이 이 家系를 調査해 보았는데, 그 結果는: 이들 子孫의 數는 2800名으로 늘어났는데, 女子의 半數는 賣春婦였고, 調査當時 600名의 精神薄弱者가 살아 있었고, 이 子孫을 爲해 그 때까지 國家에서 들인 돈이 250만 달라나 되었다.

20) Hilgard, E. R., *Introduction to Psychology*, 3rd ed., N. 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2, p. 433

21) 千輪浩監修, 心理學, 改訂版, 東京, 誠信書房, 1965, p. 21.

22) 大脇義一, 心理學概論, 改訂版, 東京, 培風館, 1960, p. 347.

觀察研究²³⁾는 이러한 見地에서 吟味할수 있는 興味로운 것이었다. Mead의 報告에 依하면 New Guinea島의 Manus 原始族에 있어서는 男子와 女子의 役割이 文明社會에 있어서의 그것과 反對이였다 한다. 卽 그들에게 있어서는 子女養育과 家庭살림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들의 責任이었고, 어머니들은 文明社會에서의 男子의 役割인 家庭밖에서의 勞動을 했으며, 特記할만한 事實은 귀여운 人形을 보고 귀여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女兒들이 아니라 男兒들이었다 한다. 이 報告가 示唆하는 것은 生活因習을 包含한 環境의 後天的作用은 男女가 타고난 先天的인 男女의 役割(sex role)까지도 뒤바꿀수 있다고 하는 事實이다.

Aveyron의 野生兒의 이야기²⁴⁾나 늑대어린이인 Kamala의 이야기²⁵⁾도 環境이 人間性的 形成에 얼마만큼이나 큰 役割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例이다. 이 두 이야기는 環境의 어떠한 影響은 人間성을 動物性으로 까지 變化시킬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環境이 Personality 形成要因中的 한 側面인 有機體의 生理的 發達에 주는 作用에 對한 實驗的 研究도 行해진바 있다. 卽 하나가 물고기의 알(embryos)의 부화환경의 造作에 따라 나타나는 발달과정의 樣相에 對한 實驗研究²⁶⁾이다. 물고기의 알들을 눈이 形成되는 段階에서 ice box 속에 몇 時間 넣어 두었다. 그 結果 부화된 물고기는 눈들이 不完全하게 形成되었거나 또 더러는 단 하나의 눈만을 가진것으로 奇形의인 發達樣相을 나타내어 보였다. 그 後 繼續해서 찬물속(環境)에서 자란 물고기들은 完全하게 成長한 後에도 如前히 눈이 하나 뿐 이었다. 勿論 正常的인 溫度를 가진 물속(環境)에서 자란 것들은 두 눈을 가진 完全한 形態의 물고기로 發達했음은 말 할것도 없다. 이 兩者에게서 나타난 結果는 同一한 遺傳的 要因에도 不拘하고 環境의 差異로 말미암아 生物體가 全然 相異한 樣相으로 發達될수도 있다는 것을 立證해 주는 例이다.

環境의 要因은 때로는 遺傳的 要因을 抑制하기도 한다. 環境의 要因이 遺傳的 要因을 抑制하고 有機體의 組織樣相까지도 變化시킬수 있을진대 生物學的 要件에 依해 크게 支配되는 사람의 Personality가 그 形成, 發達에 있어서 環境의 要因에 依해 至大한 影響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環境은 人間의 第二의 天性을 創造한다. 環境이 人間性—Personality 形成에 끼치는 影響은 至大하다. 앞서 보았던 家系研究의 結果도 遺傳的 要因못지 않게 環境의 影響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人間의 生活習慣은 勿論, 遺傳的 素質이나 本能까지도 環境에 依해서 變化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다. Watson의 有名한 말은 이러한 見地에서 吟味할 수 있다.

나에게 10餘名의 아이들을 주고 그들의 環境을 完全히 統制케 하라. 그러면 나는 그들을 무엇이든지 —原子科學者, 長官, 大學教授, 或은 비—트族等—내가 願하는대로 만들겠다. Give me a dozen of

23) Mead, Margaret, *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N. Y., Mentor, 1935.

24) 清水義弘, *教育社會學*, I4版,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1, pp. 1-5.

25) 徐明源, *教育原理*, 서울, 載東文化社, 1961, pp. 13-14. 이 두 이야기(Aveyron의 野生兒와, 늑대어린이인 Kamala의 이야기 內容說明 省略)는 人間性形成에 미치는 環境의 影響과 教育의 役割을 잘 보여 주는 例로써 널리 引用되어지고 있다.

26) Woodworth, R. S., *Psychology*, 4th ed., N. Y., Henry Holt and Company, 1940, p. 267.

children and full control of the environment, and I will make of them what I wish-atomic scientists, commissars, professors, or beatoiks.²⁷⁾

人間의 Personality를 形成하고 決定하는 兩大要因인 遺傳과 環境은 全然 別個의 것으로 分離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이 둘 兩者는 똑 같은 重要性을 가지고 相互作用하면서 Personality 形成에 決定的 役割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에 留意하면서 遺傳과 環境의 兩大 範疇에 屬하는 下部 諸 要因들이 Personality의 形成과 決定에 作用하는 具體的인 關係들을 考察해 보자.

第二節 Personality 形成에 있어서의 生物學的 要因

Personality의 形成과 決定에 寄與하는 遺傳的 側面에 있어서 個人에게 具體的으로 作用하는 것은 個體의 生物學的 要因이다.

生物學的 要因으로 于先 들수 있는 것은 體質(Comstitution)이다. 體質이란 醫學에 있어서 아직도 解決되지 않은 問題가 많은 概念으로써 이는 單純한 化石的인 遺傳的 素質이 아니라, 變動될수 있는 有機的 組織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體質은 遺傳的 關係를 갖는 素質으로써 血液化學(blood chemistry)의 基礎위에 서 있는 것으로 認定되어 지고 있다. 血液은 사람의 腦細胞에 浸透하고 있으며 腦는 血液의 微細한 變化에도 反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腦의 作用이 사람의 精神的 機能과 이에서 비롯되는 行動을 支配하는 것이므로 腦의 作用에 影響을 주는 血液의 化學的 性質에 있어서의 個人差는 사람의 Personality나 行動에 一定한 個人差를 이끄는 것으로 볼수 있다.

血液化學의 問題와의 關聯에서 考慮되어야 할 重要한 要件은 內分泌腺(endocrine glands)의 機能이다. 內分泌腺은 淚腺이나 唾液腺과는 달리 特別한 管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그 分泌液은 直接血管에 分泌되어 血液에 依해서 全身에 運搬된다. 內分泌腺은 個體의 體質에 機能低下와 機能過多의 特徵을 지워주며, 또 內分泌腺의 機能은 神經系에도 密接한 關係가 있고 그뿐 아니라, 또한 人體의 新陳代謝에도, 成長發育에도, 그리고 이의 作用에서 비롯되는 行動에도 크게 影響을 끼친다. 特히 人體의 여러 內分泌器官에는 各各 特殊한 機能이 있어 이들은 Personality의 形成과 發達에 相關關係가 있다는 事實은 다음 論義²⁸⁾에서 알수 있다.

1. 甲狀腺(thyroid gland)

頸部に 位置해 있고, thyroxin이라고 하는 hormone을 分泌한다. 이 hormone은 一般的으로 人

27) Johnson, R. C. & Medinnus, G. R., *Child Psychololgy, Behavior and Development*, N. Y., John Wiley and Sons, Inc., 3rd ed. 1967, p. 41.

28) 大脇義一, op. cit., pp. 343-346.

體의 新陳代謝機能을 調整하는 役割을 한다. 甲狀腺의 活動이 減退하면 所謂 甲狀腺機能減少症狀(hypothyreose)에 빠져 幼兒에게 萬若 이 症狀이 나타나면 身體의 發育, 特히 骨格, 齒 및 毛髮의 發育이 停止하며, 또 精神的 發育도 停止하여 cretin 病이라고 하는 一種의 精神薄弱을 이르게 한다. 成人에게 나타나면 精神的 弛緩現狀을 일으켜 思考, 記憶 및 運動이 더디게 되어 自發性을 欠如케 하고 決斷性이 없으며 우울증상과 疲勞感이 생겨 어떠한 活動도 하기 싫게 된다. 그러면서도 이따금 憤怒의 爆發들을 볼 수 있게 된다. 反對로 甲狀腺機能이 過多하게 되면 所謂 甲狀腺機能過多症(hyperthyreose)을 일으켜 活動이 過激한 사람이 된다. 이때 精神的 狀態는 교만하게 되고 活動的이며 神經質的이고 憤怒를 잘 일으키게 된다.

2. 副甲狀腺(Parathyroid gland)

副甲狀腺은 甲狀腺의 側面에 位置해 있고 그 主要한 役割은 Calcium의 新陳代謝에 있다. 이 作用에 依해서 甲狀腺機能의 均衡이 維持된다. 神經系의 興奮性은 血液中에 있는 Calcium의 量에 直接 依存한다. 副甲狀腺의 機能이 減退하게 되면 興奮하기 쉽고 反應이 迅速하게 되며 注意가 산만하기 쉽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 또 精神的 緊張狀態를 나타내게 하여 自身에 對한 批判이나 反對에 極히 敏感하게 되고 拒否性向으로 흐르게 된다. 副甲狀腺의 機能이 過多 될 때에는 이 機能이 過少할 때와 같은 뚜렷한 現狀은 나타나지 않고 過少症狀과 나타나는 그것과 正反對의 現狀이 나타나는바 이때 一般의인 傾向은 倦怠, 筋肉의 緊張損失 및 興味の 欠如等이다.

3. 腦下垂體(Pituitary gland)

腦에 가까이 位置하고 있는 腦下垂體의 分泌는 가장 迅速히 中樞神經系에 作用하여 이에 直接 影響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腦下垂體의 前葉은 人體의 骨格이나 筋肉의 發育을 調整하여 性機能의 發達을 促進한다. 이 部分의 發育이 제대로 안되거나 또 그 機能이 減退하면 사람은 矮小하게 되고 性的 發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幼少時에 腦下垂體前葉의 機能이 過多하게 되면 年令에 어울리지 않게 巨人이 된다. 成人이 되어 이 症狀이 생기면 頭腦 및 顔面의 骨格이 身體의 다른 部分의 均衡이 안잡힐 만큼 巨大해져서 容貌이 異狀하게 된다. 腦下垂體前葉의 機能이 過多할 때에는 精神的으로는 積極的, 攻擊的인 性向이 나타나게 되고, 이 機能이 減退할 때에는 反對로 느리고 活氣없는 性向이 나타난다.

4. 副腎腺(adrenal gland)

副腎腺은 左右 兩 腎臟의 上部에 位置하고 있으며 皮質과 髓質의 두 部分으로 되어 있다. 前者로부터는 Cortin, 後者로 부터는 adrenalin을 各各 分泌한다. 皮質部의 機能減退는 一般의인 弱體化, 性的興味の 欠如, 判斷의 不安全, 過敏性, 他人과의 協同作業不能, 記憶不良, 憂鬱 및 不眠症을 이르게 한다. 이 機能이 強烈할 때에는 反對로 男性的特徵이 強化되어 沈着性, 活

發性 및 幸福感을 이르게 하는 傾向이 있다. 副腎腺 髓質部의 機能이 活發치 않아 adrenalin의 分泌가 過少하게 되면 元氣없는 우울한 氣分에 支配되어 危急時의 適應的 反應이 習慣的으로 欠如하게 된다. 그러나 이 機能이 旺盛하여 adrenalin의 分泌가 過多할 때에는 反對로 活動的이고 樂天的인 性向으로 되어 事物에 對한 自發性이 많아지며 한편 感情이 흥분하기 쉬운 性向이 나타나게 된다.

5. 生殖腺(gonads)

生殖腺이란 말할 것도 없이 男性에 있어서는 辜丸, 女性에 있어서는 卵巢를 말한다. 生殖腺의 機能은 兒童期 동안에는 潛在狀態에 있지만 思春期에 이르러 이 機能은 旺盛하게 되어 男女 모두 性 hormone을 分泌하게 된다. 이 性 hormone의 分泌로 人體에는 二次性徵이 나타나게 되고 男性, 女性 모두 各各 男性다운 或은 女性다운 身體的 및 精神的 特徵을 나타내게 되고 異性에 對한 興味를 불러 이르게 한다. 實驗的研究²⁹⁾에 依하면 암컷의 卵巢를 去勢한 숙컷에 移植하면 그 숙컷은 身體的으로나 行動的으로 암컷의 特徵을 보인다 하며, 또 그 反對의 경우에는 反對現狀도 나타낸다고 한다.

6. 胸腺(thymus)과 松果腺(Pineal gland)

胸腺과 松果腺의 作用은 人體에 비슷한 影響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兩者는 모두 兒童期에는 極히 活動的이지만 青年期에 이르러 大概是 그 活動이 弱해지고 別로 重要치 않게 된다. 이 兩腺의 機能은 모두 生殖腺의 發達을 阻止하여 生殖腺에 依해서 刺戟되어 發達되는 變化를 抑制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두 腺의 作用이 萬若 오래 思春期에 이르러서 까지 계속된다면 男性이나 女性이나 青年期에 나타나는 身體的, 精神的인 特徵이 나타나지 않고, 二次性徵이나 異性에 對한 興味도 나타나지 않아 年令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아이와 같은 狀態에 머무르게 된다. 萬若, 反對로, 이들 分泌腺이 너무 일찍기 機能을 停止하면 人體에는 早熟現象이 나타난다. 特히 性的機能과 特徵이 早熟하게 된다.

內分泌腺과 아울러 神經系(nervous system)도 또한 Personality形成의 生理的要因으로써 重要한 役割을 한다. 神經系는 中樞神經系(central nervous system)와 末梢神經系(peripheral nervous system)로 大別되며, 前者는 神經機能의 中樞的役割을 하는 것으로서 腦와 脊髓(spinal cord)로 되어 있고, 後者는 中樞神經을 感覺器官(sensory organ)이나 運動器官(motor organ)에 連結하는 것으로서 腦 또는 脊髓에서 全身에 分布되어 있어 皮膚나 感覺器官으로 받아들인 刺戟을 中樞에 傳하거나 中樞의 作用을 筋이나 腺으로 傳達하거나 한다. 이러한 機能은 自律神經系(autonomic nervous system)에 依해서 自律的으로 이루어 진다. 自律神經系는 感性이나 情緒의 反應 및 이에 서 비롯되는 行動에 直接 깊은 影響을 끼친다. 自律神經系에는 交感神經系(sympathetic nervous

29) 千輪浩, op. cit., p. 23.

system)와 副交感神經系(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이 있는데 이 兩者는 서로 對抗的인 作用을 한다. 交感神經이 作用할 때에는 瞳孔이 擴大하고 心臟의 鼓動이 빨라지고 筋肉이 緊張하며 血壓이 上昇되는 등, 生理的인 變化에 따라 感情이 흥분하여 衝動을 이르고 不安스럽게 되며 이에 따라 言動이 거칠게 된다. 萬一 交感神經만이 作用한다면 人體에는 生理的으로, 또 心理的으로, 또, 行動에 있어서 豫期치 않았던 事態가 나타나겠지만, 이때 副交感神經이 自律的으로 作用하여 生理的, 心理的인 平衡狀態를 維持케 한다. 中樞神經은 自律神經에 對한 統制的인 機能을 갖고 있으므로 Personality의 形成에 寄與하는 것으로 生覺되는 것이다. 甚한 精神的不安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衝動的인 行動을 하는 精神病者에게 前頭葉截斷手術을 加함으로써 우울증을 解消해 주고 衝動性을 除去해 주는 일이 있다는 事實은 Personality의 特徵과 神經系와 的 사이에 깊은 關係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以上에서 우리는 Personality形成의 生理的 要因으로써 內分泌腺과 神經系의 機能에 對해 生覺해 보았다. 이들 機能은 個人的 Personality와 여러 모로 相關關係가 있음을 알수 있다. 人間의 Personality나 그 外的表現으로서의 行動은 이들 機能中 特히 內分泌腺의 機能과 相關성이 많은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Berman (L.)에 依하면³⁰⁾ 250名의 矯導所 收監者들에 있어서 內分泌腺의 均衡狀態의 欠陷은 通常人들의 그것 보다도 二倍 乃至 三倍나 많았고, Lulie (L. A.)에 依하면³¹⁾ 1,000名의 不良少年中 20%는 內分泌腺의 障害를 갖고 있었고 그中 半數는 腺의 障害와 不良行爲와의 사이에 直接的인 關係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지닌 障害中 腦下垂體의 障害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甲狀腺의 障害였다 한다.

內分泌腺이나 神經系의 여러 機能들은 서로 孤立해서 作用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언제나 相互 交互하면서 때로는 어느 한편의 機能이 弱하면 그와 連關된 다른 한편의 機能이 弱한 便을 補充 強化하기도 하고, 또 어느 한편의 機能이 過多하면 그와 連關된 다른 한편의 機能이 強한 便을 抑制하면서 個體의 均衡과 調和를 恒常 維持시켜 (生理的 homeostasis) 健康을 保障해 주고, 또 이들 作用에 影響받아 形成되는 Personality나 그 行動에 均衡과 調和를 維持시켜 健全한 삶을 營爲케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內分泌腺이나 神經系 等 生理的 要因들은 一般的으로 遺傳에 依해 規定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留意할것은 여기에도 後天的 環境의 要因이 相當히 作用한다는 事實이다. 例를 들면 腫瘍이나 傷害나 또는 Alcohol 마약 等 有毒物質의 影響을 받을 때에는 이들 組織이나 機能에 決定的인 影響이 주어져 이들이 變化하기도 하며, 또 榮養攝取狀態나 生活與件의 惡化나, 또는 疾病 等으로 人體에 質的變化가 생길 때에는 亦是 이들 組織이나 機能은 正常狀態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30) 大脇義一 op. cit., p. 346.

31) 大脇義一 " "

이와같이 內分泌腺이나 神經系 等 生理的 要因은 固定된 遺傳的 傾向性을 그대로 堅持하는 것이 아니라 環境에서의 後天的 經驗에 依해서 크게 變化할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大體로 一定한 特殊한 遺傳的인 傾向性이 比較的 더 強한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第三節 Personality에 있어서의 環境的 要因

Personality는 單只 生物學的 要因이나 遺傳的 素質의 自動的인 展開로 形成·發達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과 아울러 雜多한 環境的, 後天的인 經驗要因들의 相互作用으로 Personality는 形成되고, 決定되고, 發達해 가는 것이다. 遺傳的 側面인 生物學的 要因에 對해서는 위에서 論考하였다. 이제 Personality의 形成과 決定에 가장 큰 影響을 끼치는 二大要因中 環境的 側面에 있어서의 諸 要因에 對해 生覺해 보자.

Personality는 個體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條件에 對해 個人이 거기에 잘 適應하면서 獨自的인 行動樣式을 獲得해 가는 一種의 學習過程에서 形成되고 發達한다. 이 環境의 問題는 일찍 胎兒期의 母體環境으로 부터 始作되며, 出生後 個人이 그 속에서 社會的 關係를 維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 形態의 環境이 갖는 社會文化的인 與件은 個個人的 Personality의 形成에 直接, 間接으로 큰 影響을 끼친다. 이 環境은 個人的 出生前부터 出生後 一生동안 언제나 個體의 發達에 적지 않게 作用한다. 母體環境(胎兒를 안고 있는 母體의 心理的, 生理的 狀態)은 胎兒에게 影響을 주어 出生後의 新生兒의 사람됨 = Personality에 相關성이 있다고 하는 事實은 오늘날 널리 認定된 眞理이다. 그리고, 氣候, 風土 等의 自然的 環境이나, 傳統, 因習, 生活樣式 等 社會文化的 環境이 民族이나 어느 團體의 集團의 性格이나 地域의 性格에 寄與하는바 크지만, 個人的 Personality의 形成에 있어서 가장 直接的인 強한 觀響을 끼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對人關係, 即 人的 環境이다.

人的 環境으로서 個人的 Personality 形成에 가장 큰 役割을 하는 것은 家庭이다. Personality는 거의 全生活이 그 家庭에서 營爲되는 乳·幼兒期에 그 基礎的인 性向이 形成되고 決定되기때문에 家庭은 人間의, 特히 兒童의 Personality形成에 가장 重要한 人的, 社會的 環境이 되고 있다. 그런데 個人(兒童)의 Personality의 形成에 影響을 끼치는 家庭環境에서 가장 重要한 要素는 家庭의 一般的 零圍氣와 家庭이 찾아하는 社會階層 및 그 家庭의 生活手段이 되는 職業 等에서 오는 生活習慣과 文化的 氣風, 家庭構成의 規模 및 家庭에 있어서의 個人的 位置(出生順位) 등을 들수 있다. 個人的 Personality形成에 가장 큰 役割을 하는 人的, 社會的 環境으로서의 家庭에 있어서 個人的 Personality 形成, 決定과 關係되는 이들 諸要因들에 對해 簡單히 考察해 보고자 한다.

家庭의 一般的 零圍氣는 父母의 子女들에 對한 態度에 따라 決定된다. 그런데 父母들의 子女들에 對한 態度는 그들이 어렸을때 그들의 父母들의 그들에 對한 態度에 따라 決定됨을 研究는 보여 주고 있다. Symonds(1939)는 態度가 서로 다른 4個集團의 父母들을 對象으로 觀察研究했

는데(accepting parents, rejecting parents, dominating parents, submissive parents) 먼저 accepting parent 集團은 good adjustment와 acceptance로 特徵지워진 家庭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고 dominating parent들은 支配성이 강한 父母들에게서 支配를 받고 자랐던 사람들 이었으며, submissive한 父母들은 自身들이 父母로 부터 自由를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³²⁾ Radle(1946)은 父母들의 子女들에 對한 訓戒技術(disciplinary techniques)은 그들 自身이 記憶하고 있는바 어린時節에 父母들로 부터 받았던 그것과 類似한 것이었음을 報告해주고 있다. Brenson과 Kalten과 Livson(1959)은 甚한 어머니의 權威下에서 자란 어머니들은 그들 家庭에서 子女들에게 강한 權威를 行使했고 또 아버지들도 같은 Pattern을 나타내는데 아버지들에게 있어서는 權威에 있어서가 아니라 愛情의 關係에서 自身들의 子女들에게 自身들이 아버지로 부터 받았던 것과 같은 愛情을 쏟았음을 發見하였다.³³⁾

父母들의 家庭에서의 子女들에 對한 主된 態度는 Schaefer와 Bell(1955, 1958)에 依하면 專制的 態度(authoritarian attitude)와 寬容的 態度(acceptance)이 있다.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Schaefer & Bell, 1955, 1958)에서는 23項으로된 家庭에서의 父母의 態度를 測定하는 評定尺度(The PARI Scale)를 考察하여 이에 依해서 父母들의 家庭에서의 態度를 評定測定했는데 여러가지 相異한 態度들 중에서 가장 뚜렷한 傾向의 態度로써 專制的 態度(authoritarian attitude)와 寬容的 態度(acceptance)를 밝혔다.³⁴⁾ 이들 父母의 態度가 子女들의 Personality 形成에 주는 影響을 보면 專制的 態度를 가진 父母에게서 태어나 자란 어린아이들은 自己卑下的(submissive)이었고 안정성과 獨立心이 缺如되어 있었고, 또 親舊들에게 人氣가 없는 것으로 研究報告되고 있다. (Read, 1945; Radke, 1946; Miles, 1942)³⁵⁾ Radke의 就學前的 幼稚園이나 托兒所 兒童들을 對象으로 한 研究에 依하면 專制的 家庭에서 자란 어린아이들은 民主的 家庭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싸움을 하거나 다투는 傾向이 있고, 他人에 對해 無關心하고 칭찬이나 꾸중에 對해 더 無感覺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의 行動은 쉽게 敵對性을 띠우게 되고 自信성이 不足하며 따라서 親舊들에게서 人氣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다. 專制的 父母를 가진 어린이들은 一般적으로 情緒的不安과 수줍음과 自我閉鎖性과 怠慢과 盜癖 등의 Personality의 問題에 關係가 있음이 들어나고 있다. (Peterson, Becker, Shoemaker, Luria & Helmer, 1961).³⁶⁾ 家庭에서의 子女의 Personality 形成에 가장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은 父母와 子女 間의 溫情의 關係이다. Searss와 Maccoby와 Levin에 依해서 行해진 Pattern Study와 Baldwin과 Kalthorn과 Breese에 依해 行해진 Fels Research Institute의 研究는³⁷⁾ 家庭에서 子女의 Personality 形成에 가장 重要한 影響을 끼치는 心理

32) Johnson, R. C.; Medinnus, G. R. op. cit., p. 272.

33) Johnson & Medinnus, Ibid p. 272.

34) Johnson & Medinnus, Ibid p. 281.

35) Johnson & Medinnus, Ibid p. 282.

36) Johnson & Medinnus, Ibid p. 282.

37) Johnson & Medinnus, Ibid p. 283.

的 社會的 要因으로써 父母의 子女에 對한 溫情(warmth)임을 確認해 주고 있다. Symonds(1939)는 父母의 子女에 對한 具體的 表現으로써 承認(acceptance)과 拒否(rejection), 自律(autonomy)과 統制(control)를 들고 있다. 그는 父母들의 이러한 態度가 子女들의 Personality 形成에 어떠한 結果를 招來하는가를 研究하였다. Symonds(1949)에 依하면 父母로 부터 認定을 받는(accepted) 어린이들은 社會적으로 認定을 받을만한(acceptable) 行動을 하였고, 이와 反해 父母로 부터 拒否를 받는(rejected) 어린이들은 容認될 수 없는(unacceptable) 많은 行動을 했다 한다. 認定을 받는 어린이들의 行動特性은 善한 性品, 他人에의 慎重性, 明朗性, 일에 對한 關心, 親切性, 協同性, 情緒의 安定性 등 이었고, 한편 認定을 받지 못하고 拒否當하는 어린이들에게서는 他人의 注意를 獲得하려는 行動, 犯罪性 등의 特性이 發見되었다 한다.³⁸⁾ Symonds는 個人의 自己 自身에 對한 態度는 兒童期 동안에 父母가 自身에게 取한 그것과 一致함을 發見하였다.³⁹⁾ 父母로 부터 拒否를 받았던 子女들은 不安定성과 劣等感을 나타내는데 그 理由는 自身이 父母로 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無價値한 存在로 生覺하기 때문이다. 父母가 子女를 過少 評價하면 그 子女도 自己 自身에 對한 尊重心을 갖지 못한다. 父母의 子女에 對한 拒否는 子女로 하여금 父母의 愛情을 얻으려는 試圖를 이리키며 이러한 子女의 努力은 여러 形態의 注意獲得 行爲로 나타나는 바 예를 들면 먹기를 拒否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자다가 오줌을 싸거나, 투덜투덜 不平을 하거나 한다. 萬一 이러한 努力이 헛되히 돌아갈 때에는 普通 두가지 形態의 行動이 뒤따르는 것이 例事이다. 即 敵對的, 攻擊的인 性向으로 되거나 또는 自我閉鎖的(withdrawn)이거나 自我卑下的(submissive) 性向으로 된다. 父母로 부터 拒否를 당하는 어린이들은 집밖에서의 社會生活에서 正常的인 適應을 하는 경우도 勿論이지만 이러한 拒否가 繼續 오랫동안 어린이들을 抑壓할 때에는 그들 바람직스럽지 못한 性向으로 發展되는 경우가 普通이며, 그래서 그들은 安定性 缺如, 劣等感, 自我卑下感, 疏外感, 屈辱感, 不安感 등의 所有者가 되어 社會適應에 失敗者가 되기 마련인 것이다. Fels Research Institute가 行한 研究(Baldwin, Kalthorn & Breese, 1945)도 父母의 子女에 對한 承認(acceptance)과 拒否(rejection)가 子女의 Personality 形成에 큰 役割을 한다는 事實을 보여주고 있다. 이 研究⁴⁰⁾는 父母로 부터 拒否를 經驗하는 어린이들은 認定을 받는 어린이들보다 더 依存性이 강했고, 認定을 받는 어린이들은 拒否當하는 어린이들보다 더 獨立心이 강했으며, 良心에 있어서도 앞서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家庭의 心理的 霧圍氣에 있어서 또 하나의 重要한 局面은 父母가 子女의 行動을 얼마나 統制하느냐 하는 點과, 얼마나 自律과 自由를 賦與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父母의 子女에 對한 統制의 程度와, 또 父母가 子女에게 賦與하는 自律과 自由의 程度도 어린이의 Personality 形成에 크게 影響을 끼친다. Symonds의 研究에 依하면⁴¹⁾ 父母로 부터 統制를 많이 받는 어린이들은

38) Johnson & Medinnus, Ibid p. 286.

39) Johnson & Medinnus, Ibid p. 286.

40) Johnson & Medinnus, Ibid p. 289.

41) Johnson & Medinnus, Ibid pp. 292-293.

自由와自律을 많이 누리는 어린이들보다도 一般的으로 社會化가 더 잘 되어 있었고, 그들의 行動은 더 認定할 만(acceptable)했고, 그들이 屬한 集團에 더 잘 同化順應(conform) 했으며, 學業에 더 많은 興味를 가졌었다 한다. 그러나 前者는 後者보다 더 敏感하고, 수줍어하고, 自己意識을 했고, 自我閉鎖的 이었고, 응큼했고, 또 自我卑下의 이었다 한다. 한편 後者는 前者보다 더 不順從했고, 無責任했고, 學業에 興味가 없었고 頑固했으며 權威에 挑戰的이었다 한다. 그러나 이 들은 自身들을 더 効果的으로 表現할수 있었다 한다. 統制를 加하는 父母에게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또한 禮節이 바르고, 誠實하고, 正直하고, 鄭重하고, 信賴性이 있고 柔順했으며, 反面, 自由와 自律을 賦與하는 父母에게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攻擊的이고, 不遜하고, 敵對性이 強했고, 自信과 獨立心이 強했다 한다.

어린이들의 Personality 形成에 重要な 意味를 갖는 家庭의 一般的 氛圍氣로써 들수 있는 또 하나의 局面은 家庭의 親和的 氛圍氣다. 葛藤이 甚하고 不和한 家庭에서 자란 어린이들에게는 범죄性 도벽, 태만, 거짓말하는 습성, 訓育上의 難點, 질투, 과잉활동성, 言語表現에 있어서의 問題, 讀書의 問題, 社會適應의 失敗 및 同性愛等의 問題가 惹起된다는 事實이 研究報告되고 있다.⁴²⁾ 갈등이 심한 不幸한 家庭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여러가지 社會的으로 容納할수 없는 Personality와 이에서 오는 行動이 나타나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興味로운 것은 Nye (1957)의 研究에 依하면⁴³⁾ 繼續 維持되면서도 不幸스러운 家庭에서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서 完全히 과탄되어 버린 家庭에서 자라나는 靑少年들보다도 精神疾患者가 더 많이 나타났고 犯罪 行動이 發生했으며, 또 社會適應에 있어서도 前者가 後者보다도 더 失敗를 많이 내었다 한다. 이는 不和하고 不幸스러운 家庭生活은 차라리 別居나 離婚等 가정과탄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더 나쁜 影響을 끼친다고 하는 事實을 敎訓해 주고 있다.

家族의 規模도 또한 어린이의 Personality 形成에 重要な 意味를 갖는다. 家族成員이 적은 家庭에서 자라난 어린이와 成員이 많은 家庭에서 자라난 어린이들 사이에는 Personality에 差異가 있음을 본다. 家庭의 規模와 Personality와의 關係에 對한 研究는 別로 많지 않은데, 小數의 研究者들中에서 Bossard와 Sanger는 興味로운 研究結果를 報告해 주고 있다.⁴⁴⁾ 이 報告에 依하면 家族數가 적은 家庭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個性化(individualization)와 民主的協同이 잘 이루어져 있고 있는 反面, 社會的孤立化와 強한 壓力을 느끼는 傾向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家族의 數가 많은 大規模家庭에서 자란 어린이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傾向性으로써 이들은 個人的 安定感을 發見하였다. Bossard와 Boll은 子女의 數가 最小限 6名以上으로 된 100家庭을 對象으로 한 研究調査(1956)에서 大規模家庭에서 자라나는 子女들에게서 볼수 있는 Personality의 一

42) Johnson & Medinnus, Ibid p. 214.

43) Johnson & Medinnus, Ibid p. 216.

44) Bossard, J. H. S. & Sanger, W. p., *The large family system-a research report, Amer. Sociol. Rev.*, 1952, p. 6.

般化된 特徵的 type으로써 다음 8가지를 列擧하고 있다.⁴⁵⁾

1. 責任型: 大概是 첫째 子女, 特히 딸 또는 그 딸의 딸(어린 동생들을 돌보거나 어머니의 家事助力)
2. 人氣型, 社交型: 大概是 둘째 子女 또는 兄弟姊妹中 責任感이 가장 強한 子女의 다음
3. 社會的野心型: 大概是 셋째, 넷째 또는 다섯째 子女
4. 學究型: 同氣間 活動에서 뒷견에 처져 冊에서 만족을 求한다.
5. 自己中心孤立型: 同氣間的 어울림에서 除去되거나 父나 母에 對해 反抗하는 傾向性
6. 無責任型: 一家庭의 共同生活이나 家族의 責任으로 부터 迴避하는 傾向性
7. 病弱型: 더러는 만성질환을 앓기도 하고 또 憂鬱症에 빠지기도 한다.
8. 망나니型: 大概是 막내동이로써 제멋대로하고 自身만을 爲한다.

한편 이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家庭規模의 大小는 個個 子女의 Personality 形成에 充分한 根據가 없음을 主張한 사람도 있다. (Bonney1942)⁴⁶⁾

子女의 出生順位가 그의 Personality 形成에 적지 않은 影響을 끼친다는 것은 널리 認定되어지고 있는 事實이다. 特히 첫째 子女와 막내 子女들의 Personality의 一般的 性向은 다른 子女들의 그것과 相異한 點이 있음을 본다. Ausubel(D. P)에 依하면⁴⁷⁾ 長男이나 長女는 一般的으로 優越하고 支配的이며 統率的인 位置에서 生活하게 되므로 成長한 後에도 이러한 性向이 그대로 持續되어 優越性, 支配性, 橫暴性이 強하다 한다. 長男 또는 長女는 때로는 父母의 役割의 一部를 담당하게 되므로 家庭의 傳統과 經濟, 同生들 養育等에 對한 強한 責任感을 갖게 되고 따라서 自身의 生活을 때로는 自由롭게 展開시키지 못하고 지나치게 細心하거나 內向性으로 기울어지기 쉽다고 한다. 막내동이는 家庭의 最年少者라는 立場에서 지나친 사랑과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 普通이므로 오래도록 어릿광대를 부리며 溺愛型的 性向을 갖게 되어 意志가 弱하고 自制心과 獨立心의 發達이 늦어지는 傾向이 있다. Adler(A.)는 첫째와 中間과 막내 子女들의 Personality는 各各 相異한 傾向이 있음을 밝혔다. Adler에 依하면⁴⁸⁾ 이러한 差異들은 各子女가 家族 社會의 成員으로써 겪는 相異한 體驗에서 오는 것이라 한다. 첫째 아이는 둘째 아이가 태어날때 까지 많은 關心과 사랑을 받으나 둘째(동생) 아이의 出生으로 自身의 이러한 位置는 갑자기 상실된다 따라서 이러한 體驗은 첫째 子女로 하여금 他人을 미워하거나 自身의 利害關係에 너무 敏感하거나 또는 不安感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否定的인 性向을 形成케 하며 自身들이 家庭의

45) Bossard, J. H. & Boll, Eleanor S. *the large family system*, Phila., Univ. Pa. Press, 1956, cited in Johnson & Medinnus, Ibid p. 213.

46) Bonney, M. E., *A study of the relation of intelligence, family size, and, sex differences with mutual friendships in the primary grades. Child Development*, 1942, pp. 79-100, cited in Johnson & Medinnus, Ibid p. 216.

47) 閔榮順, *教育心理學*, 서울, 教育出版社, 1973, pp. 36-37.

48) Adler, A., *What life should mean to you*, Boston, Little, Brown, 1931, pp. 144-154.

關心의 中心이었던 지난날을 그리워 하는 過去志向의인 사람이 되기 쉽다고 한다. 神經病患者와 犯罪人과 술주정뱅이와 性欲倒錯者들中에 長男(또는 男女)이 가장 많다고 하는 Adler의 報告는 첫째 子女에게 나타나는 家庭의 社會的 心理的影響의 一端을 示唆해 주는 하나의 例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長男(長女)에게 좋은 指導가 베풀어 질때에는 이들에게서 다른 아이들에게서 보다는 더 責任感있고 保護的 役割을 잘 하는 性向이 發達하게 됨은 말할것도 없다. Adler에 依하면⁴⁹⁾ 둘째나 또는 兄弟姊妹中 出生順位가 中間인 子女들에게는 自己의 同氣間들보다 나아져 보려는 試圖로 말미암아 特徵的으로 野心的인 性向이 強하게 나타나고 反抗心과 시기심이 強하며 다른 同氣間들보다도 社會適應性이 더 優越한 것이 一般的傾向이라 한다. 막내동이는 大概 막나니型으로 發達하는 것이 普通이고, 次男이나 次女에게 問題兒와 神經疾患性 社會不適應兒가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 한편 첫째 子女들은 다른 同氣間들보다도 體格이나 體重面에서 뒤떨어지고, 早産이나 死産이 첫째 出生兒에게 더 많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性格特性이 다른 同氣間들에게 보다는 이들에게 더 많다고 한다.

個人의 Personality 形成에 影響을 끼치는 社會的 要因으로서의 家族關係 與件中 特別한 關心이 쏠리는 것은 獨子다. 同氣間이 전혀 없이 홀로 자란 獨子에게는 여러가지 特異한 Personality의 性向, 特히 否定的인 性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 Stanley Hall은 獨子라 하는 것은 그 自體가 病이다(Being an only child is a disease in itself)⁵⁰⁾라고 말했고 Blanton 夫婦(Blanton S. & Blanton margarat G.)는 “獨子は 큰 Handicap을 가지고 있으며 家庭에서 同氣間들과 함께 養育된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適應能力을 가지고 生活해 갈것으로 期待할 수는 없다. (The only child is greatly handicapped. He cannot be expected to go through life with the same capacity for adjustment that the child reared in the farmly with other children has)⁵¹⁾라고 獨子에게 나타나는 Personality의 否定的性向을 말하고 있다. Maslow와 Mittleman(1951)에 依하면⁵²⁾ 獨子は 大概 과잉보호를 받음으로써 버릇이 없는 망나니가 되기 쉽고 支配性과 利己心이 強하며, 反面, 人品(charactar)이 매우 弱하며 自身에게 관심과 주의가 쏠리지 않을 때에는 심한 마음의 傷處를 입는다고 한다.

獨子에게는 이러한 否定的인 側面은 아니라 이를 報償해 주는 肯定的인 側面도 있다. 獨子は 普通 그 父母의 經濟的事情이 比較的 좋은 便이며 따라서 家庭의 文化의 水準이 높기 때문에 여러 方面에서 大規模家庭에서 자란 子女들보다 優秀하다 한다. Guilford(R. B.)와 Worcester(D. A.)의 國民學校 및 中學生들을 對象으로한 研究結果에 依하면 獨子は 知能, 學業, 保健習性, 性

49) Johnson & Medinnus, op. cit., p. 206.

50) Johnson & Medinnus, Ibid p. 204.

51) The Blantons(Blanton, S & Blanton, Margaret G) *Child guidance*, N. Y., Century, 1927, p.175, cited in Johnsou & Medinnus, Ibid p. 204.

52) Maslow, A. H. & Mittleman, B., *Principle of abnormal Psychology*, Rev. ed., N. Y., Harper, 1951, p. 147, cited in Johnson & Medinnus, Ibid p. 204.

格, 社會的, 情緒的適應性等 여러 方面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 있었다 한다. 獨子が 同氣間이 있는 아이들보다 가장 뚜렷하게 優越한 것은 言語能力이다. Davis(E. A.)에 依하면⁵³⁾ 獨子は 其他의 모든 形態의 言語能力面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 있었고 同氣間(雙生兒아닌)과 자란 아이들은 雙生兒보다 나았고 두 雙童이는 세 雙童이보다 나았다 한다. 獨子들이 言語能力面에서 同氣間이 있는 아이들보다 優越하다고 하는 것은 獨子들은 大概 父母와 接하는 時間이 다른 아이들보다 越等하게 많은 關係로 父母의 言語使用形態를 그대로 模倣하여 熟達하게 되기 때문일 것임은 當然한 理致과 할수 있다.

以上에서 우리는 社會的 環境으로서의 家庭環境의 諸 與件이 個人의 Personabity 形成에 끼치는 影響들중 가장 重要한 것으로 生覺되는 것들을 概觀해 보았다. 只今까지 살펴본 諸 局面과 아울러 Personabity 形成에 重要한 意味를 갖는 家庭的 要因들은 이들 以外에도 많이 들수 있다. 例를 들면 家庭의 經濟的, 文化的 生活水準과 方式을 비롯해서 家庭(家主)의 生業이 子女의 Personality 形成에 끼치는 影響 등이 그것이다. 學校教育의 過程에서 學校內外에서의 生活과 行動에 問題性이 많은 學生들中에 相當數가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家庭의 生活營爲樣式이나 特히 生業形態와 關係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그리고 充分히 認定되어지고 있는 事實인 것이다. 家庭內的 要因과함께, 또 이와 關連하여, 家庭外的 要因으로서의 個人이 生活하는 周圍環境의 自然的, 社會文化的 與件도 또한 無規할수 없는 要因이 아닐수 없다. 孟母三遷之教는 이러한 事實을 뒤받쳐 주는 좋은 例이다.

Personabity의 形成과 決定에 寄與하는 經驗的, 環境的 規範에 屬하는 要因으로서 이밖에 許多한 것들을 들수 있겠으나 이에 對한 詳細한 論議를 略하고 다만 여기 두 要因들에 對해 附言함으로써 本章을 매듭하고자 한다. 그것은 男女의 性別의 差에서 오는 各性의 固有한 Personality의 特性傾向과, 그리고 또 하나는 人種의 差에서 오는 그것이다. 勿論 이 兩者는 本質的으로는 遺傳的 要因의 作用의 結果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經驗的 또는 環境的 要因의 作用이 적지 않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다시말하면 男女 各性에서 볼수 있는 뚜렷한 Personality의 特徵的 差異나, 人種에 따라 나타나는 그것(例를 들어 東洋人과 西洋人의 特徵的 傾向性的 差異의 하나인 前者에 있어서의 內向性向, 閉鎖性向, 後者에 있어서의 決活性向)은 그들이 各各 누리는 固有한 文化(男性文化, 女性文化, 東西洋文化)에의 恒時露出에서 오는 結果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다.

Personality의 形成과 決定을 左右하는 環境的 要因들에 對한 論議를 매듭지으면서 끝으로 想起하고 지나갈 것은 이들 諸 要因들은 決코 個人에게 各己 別個의 것으로 孤立的으로 作用하는 것은 아니라는 事實이다. 이들 要因들은 언제나 個人에게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그의 사람됨의 傾向性을 形成하고 規定하며 決定해 준다고 하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

53) 大脇義一, op. cit., p. 350.

54) Davis, E. A.,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 skill in twins, singletons with siblings, and only children from age five to ten years*, Mineapolis, Univ. of Minn. Press, Inst., Child Welf. Series, No. 14, 1937, Cited in Johnson & Medinnus, Ibid p. 130.